

다카사고 역사 투어 4

일본의 철도망이 발달하며 다카사고 지역 변영의 근원이었던 가코가와 강의 주운(舟運)은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사고 지역의 입지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일본국유철도 다카사고선 터

이 지역의 철도 역사는 1888 년에 가코가와에서 산요 철도(현재의 JR 고베선)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889 년에 다카사고초가 성립되었으며, 1901 년에는 새로 건설된 고베 제지 주식회사(현 미쓰비시 제지 주식회사)가 공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500 채 이상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1906 년에는 이미 일본 전국에 17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가네가후치 방적 주식회사가 다카사고 지역에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철도 운행이 증가하며 1913 년 4 월에 반슈 철도가 가코가와역과 구니카네역(현 야쿠진역) 사이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1914 년 9 월에 반슈 철도의 전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다카사고 지역에는 제지, 식품 및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유치되었습니다.

1914 년에 건설된 일본국유철도(국철) 다카사고선은 가코가와역에서 다카사고역까지, 국철 본선과 함께 노다 소유 주식회사(현재의 잇코만 주식회사)와 미쓰비시 제지의 각 공장으로 가는 전용 노선이 있었습니다. 다카사고선은 여객, 화물 모든 면에서 지역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1984 년에 폐지되어 70 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오마치 클럽

이 목조 2 층의 양옥집은 미쓰비시 제지 다카사고 공장에서 근무했던 기사 M. J. 셰이의 사택으로 1904 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공장의 전신은 미국인 토마스 와 존 G. 윌시 형제가 경영하던 고베 제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 1898 년에 형제의 친구이자 사업의 투자자이기도 했던 이와사키 히사야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물 부족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셰이는 공장을 고베에서 다카사고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주택은 그가 이사 후에 살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택과 정원은 일본과 서양의 양식이 섞여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10m²이며, 건설 당시에는 2,706 엔의 가치가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약 5,400 만 엔에

해당합니다. 세이가 은퇴한 후인 1905년에 이나리 신사에 가까운 우오마치의 현재 자리로 이축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원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데시오칸

이 건물은 1936년에 가네가후치 방적 다카사고 공장의 경영 간부를 위한 클럽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원호 모양의 돌출 계단, 스테인드글라스, 2층의 돌출 창문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국제적인 화학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카네카의 사원 후생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 아사히마치 정수탑

이 탑은 1923년에 안전한 급수 시스템이 필요해진 다카사고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미쓰비시 제지와 가네가후치 방적이라는 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종류의 정수탑으로는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철골탑의 높이는 26m로, 다카사고 수도의 근대사를 상징합니다.

1966년에 공장의 수원이 변경되어 탑은 운전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2003년에는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